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같은 신앙, 가정, 꿈, 직장,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것을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회복과 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모두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성전이 재건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52일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명을 발견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명을 발견했을까요? 본문의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원천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룩한 관심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녀온 형제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 궁(바사의 겨울궁전)에서 왕을 섬기는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도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느헤미야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둘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10절)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성공한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가 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축복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왕에게 공식적으로 멈추어진 성벽 재건을 허락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눈물과 슬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에게는 아픈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과 상처가 사명을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슬픔이 기도가 되고, 사명으로 변화되고 열정을 부어줍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0/4(월)	10/5(화)	10/6(수)	10/7(목)	10/8(금)	10/9(토)	10/10(주일)
을1-3	암1-5	암6-9	옵1,은1-4	미1-5	미6-7,나1-3	합1-3,습1

QT

이번 주 QT 말씀

10/4(월)	10/5(화)	10/6(수)	10/7(목)	10/8(금)	10/9(토)	10/10(주일)
옵2:1-13	옵3:1-10	옵3:11-26	옵4:1-11	옵4:12-21	옵5:1-16	옵5:17-27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오늘 말씀을 들으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특별히 관심, 하나님의 축복, 혹은 눈물과 슬픔에 대해 나누어 주세요.
3. 내가 발견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